

학술활동

초국적 금융자본의
세계지배와 민중의 삶

MF체제의 결과들을 예측해 보고, 특히 우리 사회의 '악자들'에게 어떤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인가를 토론해 보고자 하여 마련된 '초국적 금융자본의 세계지배와 민중의 삶'에 대한 학술 토론회가 오는 30일 오후 2시 서강대 다산관 오후 2시에 개최된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2부에서는 '선진 산업민주주의의 사례에 비추어 본 노사정 3자협의의 성격과 한계'에 대한 주제의 김수진(이화여대 정치학) 교수의 종합토론이 있다.

'98 환경의 날 기념 심포지엄

'98 환경의 날 기념 심포지엄'이 오는 6월 2일 오전 10시부터 6시 30분까지 국립환경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환경위해성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연구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주수영 국립환경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3부문의 패널토의와 종합토론, 특별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국립환경연구원과 한국환경독성학회가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현대의 총체적인 환경오염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적정관리방안 제시를 위해 마련되었다.

경제연구소 워크숍 열려

우리가 경제 연구소는 오는 28일 경제 워크숍을 개최한다.

'IMF의 발단, 현황 및 전망'을 제목으로 한 이번 워크숍은 한국개발원의 조동철 박사를 초청,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정경대학 4층 교수세미나실에서 열린 예정이다.

자연대 수학과 세미나

자연대 수학과는 오는 25일 오전 11시 자연대 405호에서 '물리적 문제의 수학적 접근'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의 연사는 박용문(연세대) 교수이며 자연과학 종합연구원이 후원한다.

문리대 물리학과 교양강좌

물리학에 관한 장전(물리학과)교수의 교양강좌가 오는 26일 오후 5시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이번 교양강좌는 이학부 1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 시민정보사회의 미래-(상)정립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

정보사회 주도할 시민역량 강화방안 필요

정보통신기술은 가속적으로 발전하지만 이에 따르는 문화적 적응은 기술의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보화 정책이 행정 위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시민정보사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시민정보사회의 윤리, 규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글쓴이 순서

(상) 시민정보사회의 정립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

(하) 윤리, 규범의 확립과 그 전망

서찬경

(새문명 아카데미 사무국장)

지금까지 정보사회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정보기술 변화에 따른 미래사회 예측의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정보사회에 관한 담론은 주로 현실사회에 새로운 정보기술이 도입됨으로써 일어나는 변화에 관한 연구로 모아졌다. 산업의 정보화, 정보의 산업화, 정보고속도로, 네트워크 등의 개념이다. 그런데 정보화 진행과정에서 전혀 새로운 사회적 공간이 탄생되었다는 바, 바로 사이버공간의 등장이다.

1984년 윌리엄 깁슨(William Gibson)이 출판한 SF 소설 뉴로맨서(Neuromancer)에서 묘사된 'CYBERSPACE'가 10년 후에 출현한 인터넷에 의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정보원과 기계에 연결시키는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가 또다른 현실사회공간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는 어느 특정인이나 기업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네티즌이 공동으로 창조한 디지털 공간이며, 우리는 아날로그로 이루어진 리얼스페이스 사회와 디지털로 이루어진 사이버스페이스 사회로 구성된, 즉 겹쳐진(Overlapping)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정보사회로 이행하면서 정보화도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었다. 이제까지의 정보화는 주로 국가의 문제이거나 기업의 문제였다. 그런데 이제 정보화는 사회전체의 문제가 되었으며, 시민, 나아가 국민 모두가 참여하지 않으면 별로 성과를 거둘 수 없게 되었다. 전세계 인터넷 인구의 50%가 미국인이며 인터넷 정보의 90%가 영어이다. 인터넷 인구 1억 중 5천만명이 미국인이며, 3천만명이 유럽인이다. 우리는 불과 160만명에 불과하다. 이 차이가 미국 경제의 부흥, 그리고 일본, 한국경제의 몰락의 가장 근본적 원인이다. 여기에 단순한 정보사회가 아닌 시민정보사회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국가, 기업의 정보사회가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정보사회일 때에만 정보사회가 제대로 발전하고 그것이 사회전체의 발전이라는 성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사이버공간의 정체성 확립해야

시민정보사회에 관한 논의는 지금까지 반쪽의 논의였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 논의의 주요한 내용은 현실공간의 시민사회, 시민운동이 정부의 정보화를 비판하거나, 시민운동에 정보기술을 받아들이거나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시민이 배제된 정보화에 대한 당연한



▲ 시민정보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등장한 신개념의 시민공동체이다

반응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보화를 정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그 초점은 기업에 맞추어져 있다. 시민의 에너지를 활성화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위한 정보화 투자는 외면되고 있다. 그렇지만 길잡이는 많다. 사이버스페이스사회(새로운 정보사회)에서는 전혀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과정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새로이 창조되는 사회가 바로 진실로 시민정보사회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새로운 사회를 형성한다면 당연히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사회적 물인간의 정체성(Identity)이 먼저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현실공간에서 주민등록과 같다. 그리고 사이버공간에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새로운 윤리, 공동체 형성 등의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시민정보사회 기초를 다지는데 소홀히 하면서 전자상거래, 사이버공간에 건설되는 경제적 사회(경제시스템)를 만드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시민정보사회의 기반없이 경제시스템만 받아들인다면 그 결과는 결국 우리를 미국의 사이버시

민지로 전락시키게 될 것이다. 실로 우리는 21세기 사이버세계에서 자립할 수 있느냐 강대국의 사이버식민지로 전락하느냐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에서 그 누구도 이러한 위기를 말하는 사람은 없다.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도 말이다. 오늘의 현실은 무엇인가? 사이버스페이스로 이전한 세계금융체제가 한국의 경제를 강타한 것이 그 본질이다.

정보인프라 구축에 과감한 지원 필요

시민정보사회의 구체적 모습은 새로운 문명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우리의 창조적 역동성에 달려있으며, 그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첫째,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보화의 가장 중대한 문제이다. 현재와 같은 통신요금, 인터넷 전용선 요금, 컴퓨터 가격, 컴퓨터 교육으로 사이버스페이스가 결코 시민의 공간이 될 수 없다. 나아가 대중이 참여하는 통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PC통신 인구, 인터넷 인구를 대폭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조치가 취

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공정보 DB 및 시민정보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지식인과 시민이 정보의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고, 공론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사회에 관한 정보들이 사이버공간에 투명하게 공시되어야 한다. 근대사회가 국가주도의 국민동원 사회였다면, 정보사회는 민간주도의 정보원(情報源) 사회다.

셋째, 정치, 종교, 예술, 학술등의 온라인(On-line)정보 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는 정보사회에서는 학제간(學際間)·산학연(産學研)의 시너지가 창출되지 못하면, 정보사회에 의한 고립된 사회로 오히려 퇴행할 수 있다.

넷째, 대학생 등 신세대들이 정보사회의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혁명은 세대의 혁명이다. 과거의 혁명이 계급의 혁명이었다면 정보혁명은 세대의 혁명인 것이다. 이러한 정보사회의 선도자를 조직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정부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동시에 대학생들도 이러한 고뇌와 열정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 21세기 정보사회구축과 국가경쟁력
강화전략 심포지엄

대부분 국가 차원이나 민간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던 정보사회에 대한 지금까지의 접근을 벗어나 시민이라는 정보사회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출발하고자 하는 '21세기 정보사회 구축과 국가경쟁력 강화전략' 심포지엄이 지난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새문명아카데미가 주최하고 정보통신부가 후원한 이 심포지엄에서는 시민정보사회, 즉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형성될 수 있는지, 또 이러한 가상공동체(Virtual Community)가 우리 사회의 여론형성 집단(Opinion Group)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과 사회적 기능 그리고 공동체내에서의 필요한 윤리, 규범 등에 대한 6개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논의되었다. '21세기 시민정보문화의 방향과 전망'에 대하여 주제 발표한 김성진(LG커뮤니케이션과 책임연구원)씨는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정보화 정책은 하드웨어의 추진이 중심이 되고 정보문화에 대한 논의는 구색 맞추기식의 주변적인 주제를 다뤄져 왔다"며 이러한 경우에서는 "실제 시민들의 생활에 정보통신기술을 어떻게 활용하여 정보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현균(한국전



정보기술의 활용도, 국가 경쟁력 척도

산원 정보화연구실 선임연구원)씨는 시민정보사회 발전을 위한 정보화 정책방향에 대해 시민정보사회의 '정보기반의 정비'와 '시민자체의 개발'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시민정보사회의 '정보기반의 정비'를 위해서는 멀티미디어 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사회문화 및 생활정보의 디지털화, 보편적 접근과 서비스 실현을 위한 제반 정책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으

로 그는 현재의 시민들에게는 특히 정보기술을 활용한 평생교육체제의 확립과 사회전체로의 확산 정책 등을 제시하며 시민정보사회의 구성원인 '시민 자체의 개발'을 위한 정보화 교육정책을 강조했다.

이석재(한국전산원 정보사회연구팀장)씨는 시민정보사회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시민정보사회의 구축은 온라인 공간상으로 기존생활공간

의 확장을 가져온다. 이밖에 참여자간의 의사소통과 정보제공의 기능적 결합으로 조직의 형성과 재구조화를 촉진시킨다. 또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게됨으로써 이용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정부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참여가 증진되는 효과를 가져다주며 전통적인 공동체와는 달리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그는 또한 정보사회에서 필요한 규범 확립과 인식공유, 즉 통신예절을 비롯하여 정보이용자의 상호감시, 온라인상의 정보경찰(Online Police) 운영 등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1세기 정보화 전략과 국가경제'에 관해 정인영(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씨는 정보통신분야의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고찰은 현재의 개혁과 구조조정을 위해 유익한 정책적 지침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정보기술의 활용이 기업과 산업 및 경제 전반의 활성화에 대단히 중요한 시대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는 훗날 국가 경제의 척도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시민정보사회의 개괄적인 이해 이외에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정보화 전략과 교육개혁, 21세기 정보사회와 시민운동의 새로운 방향 등의 내용들이 다루어졌다.

(정리:지은정 기자)

경희대학교
결산공고

21세기 문화세계를 창조하는

경희대학교는 97학년도 결산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학교법인

고향재단 이사장 최태섭

경희대학교 총장 조영원

학교회계 자금계산서(교비 및 기성회계합산)
(1997. 3. 1~1998. 2. 28)

과목	금액	과목	금액
가. 당기자금수입	156,255	가. 당기자금지출	156,904
1.유동자금수입	103,034	1.보수	62,940
(1)당회비	38,892	(1)보수	45,528
(2)수입금	3,291	(2)직원보수	17,412
(3)기성회비	62,079	(3)관리운영비	14,724
(4)수입금	33,522	(4)시설관리비	6,998
(5)수입금	4,142	(5)일반관리비	4,349
2.전입금 및 기부수입	38,399	3.운영비	3,377
(1)전입금	17,324	(1)연구·행정비	32,497
(2)전입금	13,117	(2)연구·행정비	13,117
(3)전입금	1,493	(3)연구·행정비	1,493
(4)전입금	3,837	(4)연구·행정비	3,837
(5)전입금	7,082	(5)연구·행정비	7,082
(6)전입금	7,082	(6)연구·행정비	7,082
(7)전입금	7,082	(7)연구·행정비	7,082
(8)전입금	7,082	(8)연구·행정비	7,082
(9)전입금	7,082	(9)연구·행정비	7,082
(10)전입금	7,082	(10)연구·행정비	7,082
(11)전입금	7,082	(11)연구·행정비	7,082
(12)전입금	7,082	(12)연구·행정비	7,082
(13)전입금	7,082	(13)연구·행정비	7,082
(14)전입금	7,082	(14)연구·행정비	7,082
(15)전입금	7,082	(15)연구·행정비	7,082
(16)전입금	7,082	(16)연구·행정비	7,082
(17)전입금	7,082	(17)연구·행정비	7,082
(18)전입금	7,082	(18)연구·행정비	7,082
(19)전입금	7,082	(19)연구·행정비	7,082
(20)전입금	7,082	(20)연구·행정비	7,082
(21)전입금	7,082	(21)연구·행정비	7,082
(22)전입금	7,082	(22)연구·행정비	7,082
(23)전입금	7,082	(23)연구·행정비	7,082
(24)전입금	7,082	(24)연구·행정비	7,082
(25)전입금	7,082	(25)연구·행정비	7,082
(26)전입금	7,082	(26)연구·행정비	7,082
(27)전입금	7,082	(27)연구·행정비	7,082
(28)전입금	7,082	(28)연구·행정비	7,082
(29)전입금	7,082	(29)연구·행정비	7,082
(30)전입금	7,082	(30)연구·행정비	7,082
(31)전입금	7,082	(31)연구·행정비	7,082
(32)전입금	7,082	(32)연구·행정비	7,082
(33)전입금	7,082	(33)연구·행정비	7,082
(34)전입금	7,082	(34)연구·행정비	7,082
(35)전입금	7,082	(35)연구·행정비	7,082
(36)전입금	7,082	(36)연구·행정비	7,082
(37)전입금	7,082	(37)연구·행정비	7,082
(38)전입금	7,082	(38)연구·행정비	7,082
(39)전입금	7,082	(39)연구·행정비	7,082
(40)전입금	7,082	(40)연구·행정비	7,082
(41)전입금	7,082	(41)연구·행정비	7,082
(42)전입금	7,082	(42)연구·행정비	7,082
(43)전입금	7,082	(43)연구·행정비	7,082
(44)전입금	7,082	(44)연구·행정비	7,082
(45)전입금	7,082	(45)연구·행정비	7,082
(46)전입금	7,082	(46)연구·행정비	7,082
(47)전입금	7,082	(47)연구·행정비	7,082
(48)전입금	7,082	(48)연구·행정비	7,082
(49)전입금	7,082	(49)연구·행정비	7,082
(50)전입금	7,082	(50)연구·행정비	7,082
(51)전입금	7,082	(51)연구·행정비	7,082
(52)전입금	7,082	(52)연구·행정비	7,082
(53)전입금	7,082	(53)연구·행정비	7,082
(54)전입금	7,082	(54)연구·행정비	7,082
(55)전입금	7,082	(55)연구·행정비	7,082
(56)전입금	7,082	(56)연구·행정비	7,082
(57)전입금	7,082	(57)연구·행정비	7,082
(58)전입금	7,082	(58)연구·행정비	7,082
(59)전입금	7,082	(59)연구·행정비	7,082
(60)전입금	7,082	(60)연구·행정비	7,082
(61)전입금	7,082	(61)연구·행정비	7,082
(62)전입금	7,082	(62)연구·행정비	7,082
(63)전입금	7,082	(63)연구·행정비	7,082
(64)전입금	7,082	(64)연구·행정비	7,082
(65)전입금	7,082	(65)연구·행정비	7,082
(66)전입금	7,082	(66)연구·행정비	7,082
(67)전입금	7,082	(67)연구·행정비	7,082
(68)전입금	7,082	(68)연구·행정비	7,082
(69)전입금	7,082	(69)연구·행정비	7,082
(70)전입금	7,082	(70)연구·행정비	7,082
(71)전입금	7,082	(71)연구·행정비	7,082
(72)전입금	7,082	(72)연구·행정비	7,082
(73)전입금	7,082	(73)연구·행정비	7,082
(74)전입금	7,082	(74)연구·행정비	7,082
(75)전입금	7,082	(75)연구·행정비	7,082
(76)전입금	7,082	(76)연구·행정비	7,082
(77)전입금	7,082	(77)연구·행정비	7,082
(78)전입금	7,082	(78)연구·행정비	7,082
(79)전입금	7,082	(79)연구·행정비	7,082
(80)전입금	7,082	(80)연구·행정비	7,082
(81)전입금	7,082	(81)연구·행정비	7,082
(82)전입금	7,082	(82)연구·행정비	7,082
(83)전입금	7,082	(83)연구·행정비	7,082
(84)전입금	7,082	(84)연구·행정비	7,082
(85)전입금	7,082	(85)연구·행정비	7,082
(86)전입금	7,082	(86)연구·행정비	7,082
(87)전입금	7,082	(87)연구·행정비	7,082
(88)전입금	7,082	(88)연구·행정비	7,082
(89)전입금	7,082	(89)연구·행정비	7,082
(90)전입금	7,082	(90)연구·행정비	7,082
(91)전입금	7,082	(91)연구·행정비	7,082
(92)전입금	7,082	(92)연구·행정비	7,082
(93)전입금	7,082	(93)연구·행정비	7,082
(94)전입금	7,082	(94)연구·행정비	7,082
(95)전입금	7,082	(95)연구·행정비	7,082
(96)전입금	7,082	(96)연구·행정비	7,082
(97)전입금	7,082	(97)연구·행정비	7,082
(98)전입금	7,082	(98)연구·행정비	7,082
(99)전입금	7,082	(99)연구·행정비	7,082
(100)전입금	7,082	(100)연구·행정비	7,082
나. 미사용잔기이월자금	10,888	나. 미사용잔기이월자금	10,239
1.기초유동자산	60,122	1.기초유동자산	65,024
2.기초유동부채	49,234	2.기초유동부채	54,785
3.기초유동자산	167,143	3.기초유동자산	167,143

■ 내부감사의견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회계장부(경회계장부)의 1997회계연도(1997. 3. 1~1998. 2. 28)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바 학교법인의 회계장부의 1997회계연도 회계처리는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업무도 적절하게 집행되었습니다.

1998. 5

학교법인 고향재단

경희대학교

감사 박성호

감사 석두수

법인회계 자금계산서(법인일반업무회계)
(1997. 3. 1~1998. 2. 28)

		(단위 : 천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당기자금수입	33,229	가. 당기자금지출	21,508
현입 및 기부금 수입	27,563	1. 보수	774
전입금수입	19,799	1)직원보수	774
(1)부속병원전입금	17,000	2.관리운영비	964
(2)수익자전입금	2,799	1)시설 관리비	199
기부금수입	7,216	2)일반 관리비	364
(1)일반 기부금	576	3)운영비	401
(2)자정 기부금	6,640	3.연구 장학 경비	415
기타교보조금수입	548	1)학생경비	415
(1)시설설비보조	321	4.교육외비용	1
(2)기타 보조금	227	1)자급이자	-
교육외수입	3,940	2)기타교육외비용	1
예금이자수입	3,470	5.잔출금	11,413
기타교육자금수입	467	(1)경상비잔출금	4,731
(3)수익자잔수입	3	(2)법정부채잔출금	2,325
투자자산기타잔수입	1,726	(3)자산잔출금	4,357
투자자산수입	412	6.투자자산기타잔지출	7,927
기타투자기타잔수입	1,314	1)투자자산지출	4,275
		2)특정자금취입	3,556
		(3)기타자산지출	96
		7.고정자산매입지출	14
		1)유형고정자산매입지출	14
미사용전기이월자금	29,828	나. 미사용전기이월자금	41,549
기초 유통자산	29,881	1)기말 유통자산	41,667
기초 유통부채	53	2)기말 유통부채	118
일용계정(가나)	63,057	지출총계(가나)	63,057